

# 시설고추 재배지에서 싸리진디벌을 이용한 복숭아혹진딧물 방제효과

전흥용, 김형환, 김동순, 양창열, 조명래, 최용문, 임명순

원예연구소 원예환경과

토착 진디벌인 싸리진디벌(*Aphidius gifuensis*)의 시설내 방사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복숭아혹진딧물이 피해를 주고 있던 시설 고추재배지에서 천적방사구, 무처리구, 약제살포구의 세처리를 두고 처리구별 복숭아혹진딧물과 머미의 밀도변동, 고추의 초장과 경경길이 및 수확량을 조사하였다. 싸리진디벌 처리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에 진딧물과 진디벌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천적방사구의 싸리진디벌 및 진딧물 밀도는 293마리, 374마리, 약제살포구는 39마리, 115마리, 무처리구는 139마리, 1693마리로서 무처리구에 비하여 싸리진디벌 방사구의 진딧물 밀도가 적어 방제효과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약제살포구는 진딧물에 대한 방제효과는 높았으나 싸리진디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추생육을 5월에서 10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천적방사구가 경경 6.63~14.12mm, 초장 45.57~126.81cm, 약제살포구가 경경 7.18~15.56mm, 초장 48.20~150.37cm, 무처리구가 경경 6.92~13.87mm, 초장 49.43~130.44cm로서 각 처리구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확량은 10a당 천적방사구가 1940kg, 약제살포구가 2110kg, 무처리구가 1070kg으로서 천적방사구에서의 수확량이 약제살포구와 유사한 반면 무처리구에 비해서는 많았다. 따라서 시설고추 재배지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복숭아혹진딧물의 방제 인자로서 토착 천적인 싸리진디벌의 우수한 방제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나아가 농가에 확대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